

제3차 전자기록관리 연구포럼 결과 보고

우리 원 및 외부 기록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기록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기록관리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

□ 포럼 개요

- (주제) 기록시스템과 전자기록 장기보존의 이해
 - 발표 : 이연창 소장 (한국문화정보기술㈜ 아카이브연구소 소장)
- (일시/장소) 2019.7.31(수) 14:00~17:00 / 대전청사 1동 202호 회의실
- (참석자) 총 41명
 - (내부) 원장, 전자기록관리과장, 원내 관심직원 등 19명
 - (외부)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22명

□ 주요 내용

- 기록시스템의 개념
 - 시스템은 절차(법, 제도, 지침 등), 도구(HW, SW 등), 사람(운영자, 이용자)로 구성
 - 소프트웨어는 대개 폭포수모델인 ‘분석→설계→코딩→테스트→유지관리’ 과정으로 개발되며, 분석 시 업무담당자의 높은 참여 필요
 - ⇒ KS X ISO 15489의 DIRS(기록시스템 설계과 구현)에서 제시하는 8단계 중 4단계(예비조사, 업무활동분석, 기록요건확인, 기존시스템평가)가 분석단계로서 ‘분석’단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
 - ※ 시스템의 오류는 설계나 코딩보다 요구사항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
 - 시스템 개발방법은 ①신규개발, ②패키지도입(완제품을 구입), ③커스터마이징(customizing, 조직의 요구에 맞게 완제품을 변경)이 있으며 각각 장·단점이 있어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 필요
(예시) CAMS(신규개발), 기관의 표준RMS 도입(패키지도입), 일부기관의 표준RMS 수정(커스터마이징)
 -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은 MoReq2010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·관리가 가능함. 다만, 업무관리시스템과 달리 행정정보 시스템은 모니터링 방식*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- * 대부분 이관하지 않고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도록 하는 우리원 데이터세트 관리방안과 유사

○ 전자기록 장기보존의 이해

- 전자기록은 비가시성, 내용과 표현정보 및 맥락정보의 분리, 빠른 기술발전 속도, 매체취약성 등으로 장기보존에 취약
- 장기보존 전략에는 마이그레이션, 에물레이션, 인캡슐레이션이 있음
- ISO 14721(OAIS)과 ISO 15489-1:2016의 ‘마이그레이션’ 정의가 서로 달라* 이에 대한 검토 필요
- * ISO 15489-1:2016은 포맷의 변화없이 다른 곳으로 기록을 이전하는 프로세스이며, ISO 14721은 마이그레이션에 포맷을 변화시키는 재패키징과 변환을 포함하고 있음
- 전자기록의 무결성 고려시 종이기록과 다르게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변화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감사증적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
- 클라우드 컴퓨팅, 블록체인,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, 기계학습 등 다양한 신기술을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

□ 원장님 말씀

- 전자기록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다양한 분야별로 오랜기간 고민해온 외부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통해 원내 또는 외부 기관 중 전자기록에 대해 관심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기록에 대한 기본 지식을 향상시키고 공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음
- 9월까지 예정된 강의 이후에도 전자기록관리과는 세부 주제별로 추가 강의를 하거나 대담 형식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연구포럼을 기획하였으면 하며, 더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함

□ 향후 계획

- 연구포럼 개최결과 및 발표자료는 홈페이지(혁신게시판)에서 공유
- 「제3차 전자기록관리 연구포럼」 개최(8.28, 아카이브 상호운용성) 예정

